

양록인의 제자리찾기 노력이 요구된다

성 락(成樂)
다다사슴목장

지난 9월중순경 필자는 국내 유일 양록전문잡지인 「월간사슴」으로 부터 원고청탁을 받았다.

필자가 매달 집필해온 “사슴과함께 달린다”의 계속집필에 관한 청탁인에 편집책임자가 바뀐 이유로 재청탁을 한다는 것이었다.

그런데 필자는 나름대로 최근의 양록상황 등에 대한 의견을 적어 보냈던 원고를 게재할 수 없다는 통보를 월간사슴사로부터 받았다. 이유인즉 자사의 명예에 손상을 주는 내용이 원고중에 있으므로 그 부분을 삭제하지 않고는 곤란하다는 것이었다.

『원고내용이 사실 그대로임을 인정하는 모양인데 그렇다면 명예에 손상이 가는 일을 왜 합니까?』

이같은 필자의 질문에 대해 신임 편집실장이라고 밝힌 담당자는 『명예만 가지고 사는게 아니지않습니까?』라는 애매모호한 답변만을 한채, 그 부분을 삭제하지 않고는 절대 원고를 게재하지 못하겠다고 밝히는 것이었다.

결국 원고는 게재되지 않고 며칠후 돌려받았는데, 필자는 지금 당시의 원고내용을

대략 밝히고자 한다.

「...불과 1년전까지만 하더라도 사슴수입의 “수”자만 들먹여도 마치 양록인의 적인양 흥분하고 성토했던 양록인들이 지금 서로 사슴을 수입하겠다고 아웅다웅하고 있으니 이 같이 한심한 일이 또 어디 있겠는가? 물론 상황이 바뀌어 제도적으로 사슴시장이 자유화되긴 했지만 국내 양록인들이 1년전의 그 같은 마음으로 수입에 아예 손을 대지 않던가, 아니면 수입된 사슴을 분양받지 않던가 하면 제도의 변화는 무의미해지지 않겠는가? 지금 이 순간에도 양록인들의 일치된 합의로써 사슴의 수입을 억제시키는 방안을 궁리해야 할터인데 서로 수입사슴을 한몫 잡겠다고 아우성이니 답답한 노릇이 아닐수 없다. ……(중략) 그런데 참으로 양록인들을 분노케 하는 것은 위와같은 대책들을 홍보하고 또한 주도해야 할 개인이나 집단들이 사슴수입창구 일원화 여부를 가지고 티격태격하고 있는 그 장본인들이라는 점이다. 이들은 지금 자신들리 해야하는 일이 무엇인가를 크게 착각하고 있는 듯 싶다. 만약 착각이 아니라면 이들이 애초 양록인들에게 그럴듯한 모습으로 나타난 이면에는 또다른

무엇들이 있었다는 것이리라. 듣기에 사슴수입창구 일원화를 주장하는 측은 양록조합이라고 한다. 그러나 지금조합이 할 일은 생목의 수입·분양사업이 아니다. 그에 앞서서 해야 할 일들이 너무나 많다. 바로 수입사슴 거부운동 등등일 것이다. 또 양록잡지의 대표가 최소한 기만두의 사슴수입을 위해 검역당국에 의뢰한 모양이다. 수입후 분양업무만을 전담할 직원들에 대한 제법 체계적인 교육도 진행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 자세히 살펴보면 본래의 업무는 뒷전이고 오로지 경영의 목표를 거기에 두고 있는 듯 싶다. ……(중략)모두들 한국양록업을 올바른 길로, 영원히 사는 길로 인도하는 중심적인 역할을 하는 방향으로 힘을모아 주었으면 하는 마음 간절하다.…(하략)」

이같은 내용에 필자는 「양록인의 제자리 찾기 노력이 요구된다」는 제목을 붙여 보냈던 것이다.

월간사슴에서 문제삼았던 부분은 바로 「양록잡지의 대표가……」로 시작된 부분인데 소위 부대사업으로서 추진하는 사업을 겉으로 드러내놓지 못하겠다는 점으로 미루어보아 최소한 수입론자들이 수입을 정당화하기 위해 입에 올리는 그럴듯한 이유도 없이 오로지 한몫 챙기겠다는 장사속임으로 사슴을 수입하겠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 아닌가 싶다.

어느 분야를 막론하고 서로 조금씩 다른 부분들을 맡고 있는 구성원들이 각자의 위치를 굳건히 지켜나가는 것이 중요할 것이

다. 특히 급격한 상황변화로 어려운 지경에 처해있을 때는 더욱 필요하다.

마찬가지로 한국 양록업이 갑작스런 수입 개방 정책으로 큰 혼란에 빠졌다면 양록인들은 각자의 위치에서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방안모색에 최선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절대 남의 영역을 넘보지 말고 우왕좌왕하지 말아야 할것이다. 각자의 할 일을 더욱 열심히 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그런데 이같은 것들을 깨우쳐 주고 불필요한 혼란을 일어나지 않도록 중심적인 힘이 돼주어야 할 곳이 바로 “언론”이다. 양록만을 기사로 다루는 전문지로서는 더욱 그렇다. 국내에서는 최초로 “양록산업 발전”의 기치를 내걸고 출발한 유일한 전문잡지로서 요즘과 같은 시기에 어떠한 역할을 해주어야 하는가 정도는 그 당사자들이 더 잘 알아야 할 것이다.

사실 양록인들 중에는 과거에도 자신의 위치를 찾지 못하고 경거망동함으로써 양록 발전에 위대한 결과를 초래했던 사람들이 없지는 않다. 그들은 비록 공인이 아닌 개인이었지만 그럴때마다 혹독한 비난을 받곤 했었다. 그러면서 한국 양록업은 서서히 발전해 왔던 것이다.

이제 외부적인 요인에 의해 혼란스런 지경에 이른 양록산업에 설상가상으로 자신의 위치를 찾지 못하고 업계를 어렵게 만드는 모든 사람이나 집단을 철저히 배격당해야 한다. 특히 개인이 아닌 “공공”의 개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나 집단을 더욱 그렇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들 당사자들이 각성해야 할 것이다. 또한 모든 증지를 모아 이제라도 어려운 양록산업을 살리기 위한 방안 모색에 적극 나서야 한다.

이제 살아있는 사슴시장이 개방되는 시점이 얼마 남지 않았다. 갑작스런 수입결정으로 인한 요인도 있겠지만 개방발표이후 약 1년간 양록업계는 너무도 혼란스러웠다. 모두들 우왕좌왕하고 그중“한몫”을 노리는 몇몇에 의해 더욱 방향을 잡지 못하고 표류해왔다. 도대체 수입개방 이후에 대처할 수 있는 이렇다할 방안이 양록인들의 일치된 결정으로 마련되어있는 것이 없다. 오로지 “수입”의 뚜껑을 열어보는 수밖에 없는 한심한 지경에 이르러 있다. 수입의 파고가 어떤식으로 닥쳐오더라도 감수해야만하는 절망적인 상태에 놓여있는 것이 사실이다.

다행이도 수입결정 이후 양록수출국들의 시장변화 또는 정책변화들로 인해 수입여건에도 많은 변화가 생겨 무제한적인 수입으로 인한 소용돌이는 면할 수 있게 되는 모양이다. 이는 이제 보름여밖에 남지 않은 비개방기간 동안이라고 양록인들의 일치된 합의만 있다면 수입개방의 의미를 크게 축소시킬 수도 있음을 알려주는 것이기도 하다. 그러기에 이제라도 모든 양록인과 관련단체들이 자신의 위치를 찾아야 한다. 그리고 해야 할 역할이 무엇인가를 냉철히 판단해보아야 한다.

혹자들이 이야기 할 수도 있을 『개방의 물결을 거스를 수는 없다』는 의견을 거부한다

기 보다 이를 극복하고 뛰어넘을 수 있는 방향, 즉 수입차체를 무의미하게 만드는 작업을 양록인의 힘으로 추진해야 할 것이다. 또 이를 추진할수 있는 기간을 매우 짧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이다.

한편, 이같은 분위기가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양록인의 힘이 미치지 않는 곳에 대한 대책도 마련해야 한다. 즉, 재벌기업들의 수입 참여를 막아야 한다. 막강한 재력만을 믿고 돈버는 일이라면 물불을 가리지 않는 M유업 등 재벌기업들을 물리쳐야 한다. 양록인들은 물론 농축산관련 단체들과 연대해 우선 불매운동부터라고 시작해야 한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들이 수입하는 사슴을 분양받는 중대한 실수들을 저지르지 말아야 할 것이다.

이제 강원도의 외진 산골짜기에서 부푼 희망을 가지고 막 양록업을 시작한 필자를 비롯, 모든 양록인들이 영원히 살 수 있는길은 선택되어져 있다고 본다.

양록인들은 절대 수입에 손을대지 말고 재벌기업을 포함한 비양록인들이 수입하는 외국사슴을 절대 분양받지 않기로 경의하는 것이 그것이다. 또 제발 수입을 염두에 둔 억지명분들을 만들어내지 말자. 우수종록용이라든가 수급조절을 위한다는 그럴듯한 명분을 내세워 양록인들 스스로 핵폭되는 우를 범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이러한 작업들은 기울어가는 이해 중으로 서둘러 끝내야 할 것이다. ★★